

# “조작파문, 당 지시 밝혀지면 의원 사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당 차원 기획설 일축... 송영길 의원 “일개 당원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대선 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당 최대 위기를 불러온 ‘문준용 재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당에서 조작을 지시했거나 그런 게 밝혀지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당 차원의 기획설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사전에 조작 여부를 알았다든지, 당의 조직적 은폐 여부만 드러나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5월5일이면 이미 대선 판이 기울었다. 뭘 해도 안 먹힐 시간”이라며 “이건 그냥 하던 것을 이왕 열심히 해보는 거지, 그 정도 (국면전환용 기획) 카드도 아니다. 그럴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기획설을 재차 부인했다.

이 의원은 또 사실을 털어놓자는 이유미씨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은 취하겠다’고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조사를 받으면 귀찮긴 하겠지만 끝까지 알겠느냐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당이 이씨 선에서 조작파문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도 억울하다고 안 한다. 죽고 싶다” 나 때문에 당이 망하게 됐다”는 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도 조작 사실을 지난 25일에 알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아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제유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 국민의당 ‘문준용 조작’에 여당 의원 비판 봇물

한편,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혹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후보 측의 문준용 관련 흑색선전에 피 말리는 심정으로 싸워왔던 시간이 생생하다”며 “새 정치를 표방한 안 후보 측이 홍준표 대표의 김경준 기획 임명 가짜편지 소동을 능가하는 음성조작을 하는 게 일개 당원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고 반문했다.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꼬리 자르기 고백이 아닌 길 바란다”며 “뚝뚝처럼 자라났던 정치 공작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이 국민께 용서받을 길은 이제라도 진실만을 고백하고 법의 엄중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의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준용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국민의당의 사과가 너무 늦었다”며 “조작자는 지시받은 것이라는 데 당 대표가 지시자도 안 밝히고 검찰출두 직전에야 브리핑을 한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위 자료 가져온 당일만 나쁘고 대선에 악용한 당도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정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런 게 그들이 말하는 ‘새 정치’였나”라고 반문하며 국민의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친문 성향의 김경협 의원의 페이스북에 “새 정치 라는 모든 명분은 사라졌다”며 “지금이라도 사과와 반성이 진심이라면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은퇴하고 국민의당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특별단장을 맡았던 강병원 의원은 트위터에 “국민의당의 ‘새정치식 공작 정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총풍, 북풍으로 불안을 자극해 선거를 뒤집으려한 ‘한나라당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을 속여서라도 정치적 이익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오만한 발상에서 비롯된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뉴스

### 국민의당 전북 의원, 이낙연 총리 면담 군산조선소 등 전북 현안 해결 촉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포함 전북도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당 전라북도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새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군산조선소 해법 마련과 새민금 개발의 시급성 등을 언급하며 “당에서 지시했거나 그런 게 밝혀지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당 차원의 기획설을 일축했다.

28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이뤄진 이 총리와의 면담에는 국민의당 전라북도 소속 의원들 중 김관영, 김중희, 유성열, 정동영 의원(가나다 순)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당 전북도 의원들은 전북 수출의 8% 군산경제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7월 초 도크가 폐쇄되면 4,000여명의 실업자가 생길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지지부진한 새민금 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전주 혁신도시 활성화, 새민금 복합리조트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현대중공업 측은 잠정 중단이므로, 수주 여건이 개선되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면서 “조만간 정부가 현대중공업 측에서 정확한 상황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별도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지지부진한 새민금 개발 사업의 경우, 이 총리는 “새민금 개발청장을 전북도 출신의 역량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 새민금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시기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주-새민금 고속도로, 동서2축, 남북2축 도로 등의 예산투입이 제때 이뤄지고 공공매립과 기업투자 인센티브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주 혁신도시의 경우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도입하면서 관련기업 170여개를 유치한 사례가 있다”면서 “결국 사업이 중요한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능력 있는 인사를 임명해 금융클러스터 조성에 점권을 줄 것이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에게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군산 전복대 병원의 경우,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만약 7년간 진행된 사업이 무산되면 상실감이 클 수 있기에 재검토해서 반드시 정상진행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장차관 인사 뿐 아니라, 기재부 예산 실 국과장 등 아래서부터 인사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보수정권 9년간 공공부문에 보복성 인사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도 필요하다”고 총리에게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 김광수 의원, “최순실 재산물수 활동 앞장서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물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최순실 재산물수 특별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은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과 국민을 농단했으며,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분노와 끝 모를 부정 축재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순실 재산물수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최순실 일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최순실 재산물수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1명, 정의당 의원 4명, 바른정당 2명, 자유한국당 1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도당, 도내 14개 시군 대통령 공약이행 실행안 제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 14개 시군 대통령 공약이행 실행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2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6월 19일 무주군까지 한달여 동안 도내 14개시군을 순회하면서 대통령 공약이행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실행안은 14개 시군이 제출한 대통령 공약 과제와 주요 지역현안이 담겼다. 특히, 실행안에는 대통령 공약집과 연계된 각 지역별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총 5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1일 국정자문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 이용호-박춘란, 서남대 정상화 추진방안 논의

### 박 차관, “이달 말까지 정상화 방안 제출받을 예정”... 이 의원 “관계자 한 테이블서 논의 필요”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서남대 정상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남원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바람이 간절하다”며 “교육부가 주민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서남대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박 차관은 “8월말까지 서남대, 삼육대 등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추가·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현 시점에서 교육부, 옛 재단, 시립대 등 관계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구체적 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주말 간담회에서 서남대 옛 재단이 정상화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저 또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서남대 재단의 서남대 인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주말에는 서남대 옛 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상화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진성 기자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